

이정후, 타율 1위 탈환에 다시 부상하는 '부자 타격왕'



1994년 이종범 타격왕에 이어 2021년 아들 이정후 도전
부상으로 한달 자리 공백 불구 데뷔 5년만에 타격왕 도전

이정후(23·키움 히어로즈)가 KBO 사상 첫 '부자 타격왕'을 위해 매서운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 이정후는 지난 12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쏘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 중견수 겸 3번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키움은 이정후의 활약을 앞세워 단독 5위로 올라섰다. 최근 이정후가 타석에서 보여주는 위압감은 대단하다. 구종과 코스를 가리지 않고 안타를 생산해내고 있다. 전날 경기에서도 중견수, 우익수 앞 안타, 좌전안타를 만들어 냈다. 이정후는 NC 선발 드류 루친스키를 상대로 포심, 투심, 커브를 모두 공략해 에이스를

조기 강판 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는 10월12일 현재 타율 0.357(406타수 145안타)을 기록해 KT 위즈의 간판타자 강백호(타율 0.354)를 2위로 끌어내리고 다시 타격 1위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잘 알려진대로 '바람의 아들' 이종범(51) LG 트윈스 코치의 아들이다. 이 코치는 현역시절 '야구9단', '야구천재'라는 수식어를 받았다. 타고난 야구 센스를 바탕으로 타격, 주루, 수비 등 모든 능력을 갖춘 선수였다. 이종범 코치는 1994년 0.393(499타수 196안타)의 뛰어난 성적으로 타격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지금의 이정후보다 1살 많은 24살에 이룬 일이다. 당시 124경기에서 출전해 200안타, 4할에 육박하는 성적을 올리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정후는 아버지의 '천재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4월까지 타율 0.269(93타수 25안타)라는

다 소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출발한 이정후는 5월 타율 0.451(82타수 37안타)로 타격감을 끌어 올렸다. 2020 도쿄올림픽 이후에는 오히려 부상으로 한 달가량 자리를 비웠지만 다시 타격감을 찾아 데뷔 5년 만에 타격왕에 도전하고 있다. 이 코치와 이정후는 2017년 야구 대표팀에서 코치와 선수로 호흡을 맞춘 적도 있다. 대를 이어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도 대단한 일이었으며, 대표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것도 최초였다. 이정후가 타격왕에 오른다면 KBO리그 최초 '부자 타격왕'에 오르게 된다. KBO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다. 부자 타격왕은 100년이 훌쩍 넘는 메이저 리그(MLB)조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진귀한 기록이다.

뉴스스

뜨거운 프로야구 개인타이틀 경쟁, 끝까지 예측불허

이정후-강백호, '3리 차이' 타율 1위
나성범-최정, 토종 거포 홈런왕 경쟁
두산 미란다, 트리플 크라운 도전

치열한 순위 다툼 만큼이나 개인 타이틀 경쟁도 예측불허다.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타이틀 주인공을 향한 다툼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타자 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문은 타율이다. 데뷔 때부터 '천재 타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와 강백호(KT 위즈)가 앞치랑뒤치랑하고 있다.

12일 현재 타율 1위는 이정후다. 이정후는 12일 NC 다이노스전에서 4타수 3안타를 휘두르며 시즌 타율을 0.357로 끌어 올렸다.

강백호는 이날 두산 베어스전에서 3타수 무안타로 침묵, 타율이 0.354로 떨어져 2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정후와 3리 차이에 불과해 여전히 사정권 내에 있다.

점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꾸준한 타격감을 선보여야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강백호는 타율 외에도 출루율과 타점, 안타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 출루율은 0.460으로 1위를 지키고 있고, 타점(95개)과 안타(161개)는 2위다.

타점 부문 1위에는 101타점을 기록 중인 양의지(NC)가 랭크돼 있다. 최다 안타는 169안타를 때려낸 전주우(롯데 자이언츠)가 선두를



달린다. 홈런왕은 토종 거포들의 싸움이다. 각각 31개의 아치를 그린 나성범(NC)과 최정(SSG 랜더스)이 홈런 레이스를 맨 앞에서 이끌고 있다. 나성범은 2012년 프로 입단 후 첫 타격왕 도전이다. 2016년과 2017년 홈런 1위를 차지했던 최정은 4년 만에 타이틀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득점 부문에선 삼성 타자들의 집안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구자욱(삼성)이 99개로 1위에 올라있는 가운데 호세 피렐라(삼성)가 2위(95

개)로 추격 중이다. 도루 부문에선 김해성(키움 히어로즈)이 40도루로 박해민(삼성·33도루)을 따돌렸다. 김해성은 90.9%의 놀라운 도루 성공률까지 자랑하고 있다.

투수 쪽에서는 다승왕 자리를 두고 외국인 투수들이 점전을 벌이고 있다.

에릭 요키시(키움)와 데이비드 뷰캐넌(삼성)이 나란히 15승을 수확해 공동 선두에 올라있고, 드류 루친스키(NC)는 14승으로 이들을 바짝 뒤쫓고 있다.

공동 4위 아리엘 미란다(두산·13승)는 역전을 노리고 있다. 평균자책점(2.30), 탈삼진(204개) 부문에서도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란다가 다음 1위까지 차지한다면 트리플 크라운(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을 달성할 수 있다.

백정현과 원태인(이상 삼성)은 각각 13승으로 미란다와 함께 공동 4위를 마크, 토종 투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홀드 부문에서는 장형식(KIA 타이거즈·28홀드)과 주권(KT·27홀드)이 1,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장형식은 지난 10일 한화과 더불어 두 경기에 모두 등판해 하루에 2홀드를 챙기면서 단독 선두로 나섰다. 지난해 홀드왕에 오른 주권은 2년 연속 타이틀 지키기에 도전한다.

오승환(삼성)은 39세이브를 수확, 통산 6번째이자 2012년 이후 9년 만의 세이브 1위에 다가섰다.

'괴물' 김민재, 철벽 수비로 '지옥 원정' 무승부 견인

'압도적 피지컬'로 이란 공격수 제압

벤투호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페네르바체)가 철벽 수비로 '지옥의 원정'에서 값진 무승부를 견인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후반 3분 손흥민(토트넘)의 선제골로 앞서 갔지만,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크시(페에노르트)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이란 원정에서 8경기 연속 무승(3무5패) 부진은 계속됐으나, 적지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이란(승점 10)에 이어 A조 2위(승점 8)를 지켰다.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은 각 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한다.

해결사는 손흥민이었지만, 이란 원정에서

경기 내내 빛낸 건 '몬스터' 김민재였다.

이란이 한국 골문을 열기 위해 유럽 명문 구단에서 주전으로 뛰는 사르다르 아즈문(제니트), 자한바크시, 메흐디 타레미(포르투)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김민재가 이들을 철통 봉쇄했다.

유럽 피지컬을 지닌 이란 공격수들과의 몸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한국이 원정에서 후반 30분까지 무실점을 이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전반 경기 도중 타레미의 쇄도를 어깨로 쳐내는 모습은 김민재의 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스피드에서도 김민재는 상대를 앞섰다. 이란의 뒤공간 침투는 김민재의 빠른 커버에 대부분 끊겼다. 또 빌드업 과정에서 김민재는 직접 공을 전방으로 운반하는 등 공격의 시발점 역할도 푹푹 해냈다.

이란전을 본 해외 축구 팬들도 김민재의 수비력에 찬사를 보냈다.

일본 야후 재팬 스포츠 탭 테이즌들은 "김민

재는 상대를 날려버리는 괴물이었다. 아시아의 판 다이크"라고 엄지를 세웠다. 버질 판 다이크(리버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뛰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

기록도 김민재의 활약을 증명한다. 그는 이란전에서 발밑 경합, 공중 경합 등에서 100% 성공률을 자랑했다. 심지어 드리블 성공도 100%다.

이란의 드라간 스코치치(크로아티아) 감독은 경기 후 아즈문, 타레미 등이 김민재의 수비에 고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아즈문은 팀에 중요한 선수"라며 선수의 기를 살렸다.

김민재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없었지만, 이란이 괴물 수비에 고전했다는 걸 의미한다.

올여름 터키 명문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현지 언론이 선정한 8라운드까지의 전체 베스트11에 선정되는 등 유럽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규리그 7경기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2경기까지 공식전 9경기에 선발로 뛰었다. 최근 정규리그 5경기를 포함해 7경기 연속 풀타임이기도 하다.

뉴스스



12일 오후(한국시간)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벤투호와 이란 경기, 손흥민이 후반 3분 선제골을 터뜨린 뒤 황의조를 등에 업고 세리머니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이란과 비기며 '지옥의 2연전' 넘긴 벤투호

1위 이란-2위 한국, A조 '2강 체제'
레바논, 시리아 꺾고 최종예선 3위
UAE, 이라크와 2-2 진땀 무승부

벤투호가 10월 '지옥의 2연전'을 무사히 넘기며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해 순항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이란과 1-1로 비겼다. 후반 3분 손흥민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크시에 게 동점골을 내줬다.

'원정팀 지옥'으로 불린 이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한 건 긍정적이지만, 1974년 9월 이란 원정 A매치를 시작한 이후 이날 무승부까지 8경기 연속 무승(3무5패) 징크스는 계속됐다. 지난 7일 시리아와 최종예선 3차전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한 한국은 이란 원정에서 사상 첫 승리를 노렸으나,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장거리 이동과 유럽의 역사차 등 악조건에도 10월 2연전에서 승점 4점을 확보하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청신호를 켜다.

벤투 감독도 이란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승점 8점이 됐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란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긴 한국은 승점 8(2승2무)을 기록하며 선두 이란(승점 10)

에 이어 A조 2위를 유지했다.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은 각 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한다. 한국은 11월 또 한 번 중동을 이동하는 2연전을 치른다. 11월11일 홈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5차전을 치른 뒤 11월16일 시리아와 6차전 원정 경기에서 나선다.

이란과 한국이 승점 1점씩을 나누어 가진 가운데 이어진 A조 다른 경기에선 약체로 분류됐던 레바논이 시리아를 꺾고 3위로 올라섰다.

레바논은 요르단 암만의 킹 압둘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시리아와의 4차전에서 3-2로 역전승했다. 레바논은 A조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97위로 가장 낮다.

레바논은 전반 20분 오마르 크리비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으나, 전반 추가시간 모하마드 잘라 크두마 연속골을 터트리며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또 후반 8분 하산 알리 사드의 추가골로 더 달아났다.

시리아가 후반 19분 오마르 알소마의 만회골로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으나, 경기는 레바논의 승리로 끝났다.

승점 5점(1승2무1패)이 된 레바논은 이라크와 2-2로 비긴 UAE를 제치고 3위 싸움에서 앞서갔다.

당초 이란, 한국과 선두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UAE는 또 첫 승에 실패하며 4위(승점 3·골득실 ·1)로 내려갔다. 5위는 이라크(승점 3·골득실 ·3), 6위는 시리아(승점 1)다.

최종예선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카타르 월드컵 본선행을 결정짓는다.

뉴스스